주님께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주어진 일을 완수한다는 마음과 주님께 봉사한다는 각오에 몰두하여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이룬 성과가 미진하다고 느껴질 경우도 있기에, 때로는, 힘이 쭉 빠지고 허탈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게 된다. 이럴 때 우리의 힘과 평화의 근원을 찾아 회복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축복 받는 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기도와 성서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일 것이다.

우리 중에 우리의 심신이 시험 받는 상태인 거친 영적 사막에서 시간을 낭비하며 보낸 적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 위대한 프란치스칸, 보니벤투라 성인께서도 그의 영혼의 샘이 고갈되어 위로와 격려를 갈망하던 체험을 겪으신 적이 있다.

1259 년, 마음이 허탈상태에 계실 때 보나벤투라 성인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환시와 체험을 묵상하기 위하여 라 베르나 산에 가신 적이 있는데, 그 곳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쓰시었다.

지극히 복되신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신 길을 따라, 떨리는 마음으로, 그 평화를 갈구하고 있을 때, 이 죄인, 지극히 복되신 사부님께서 앉으셨던 자리에 오르기에는 만부당하고 쓸모 없는 죄인 제가 어찌… 그분이 돌아가신 후, 하느님의 은총으로 죄인인 제가 그 분이 계셨던 자리에… 혼란스러운 나의 영혼의 평화를 찾기 위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Alverna 산에 머문 적이 있었다. 내 영혼이 하느님의 품에 안기는 길을 사색하고 있을 때, 앞서 말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프란치스코 성인 자신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 났던 것이다: 바로 십자가 뒤에 날개를 가진 세라핀 천사의 환시… (하느님께 향한 영적 여정, 서문 2 절)

어째서 보나벤투라 성인께서 위로와 평화를 찾기 위해 라 베르나 산으로 가셨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바로 그 산에서 있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체험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회개 생활의 초기부터 프란치스코 성인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님께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셨다. 돌아가시기 두해에 앞서, 그분은 금식과 기도를 하기 위하여 라 베르나 산에 가셨다. 깊은 관상 속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여섯 날개를 가진 세라핌 천사가 그에게 내려오는 환시를 보셨다. 천사의 모습이 사라자, 프란치스코 성인의 몸과 팔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성혼이 남겨졌을뿐만 아니라, 지극히 깊고 높은 주님의 사랑 또한 사부님께 남겨졌다, 이 사랑이 성인으로 하여금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송'을 쓸수 있는 영감이 되었으며, 성인은 직접 자신의 축복과 함께 이 찬미송을 레오 형제에게 주신 것이다.

중세시대의 불란서 사람, 안드레 바우체는 그가 쓴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짧은 메세지 지만, "아씨시의 가난한 사람은 그가 막 마감한 생애에 대한 작은 암시도 남기시지 않고, 민수기 6 장 24-26 절에서 뽑은 구절을 인용한 말로 대신 하는데 끝치셨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 구절을 택하신 데에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현시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레오 형제에게 주신 이 형태의 글이 필시 우리에게도 프란치스코 성인이 막 마친 생애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은 영적 체험의 메아리가 올 것이라 믿고 싶다." (130 쪽)

성 프란치스코와 성 보나베투라의 영적 체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겠는가? 아무도 없다고 나는 본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상의 예수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관상한다면, 그리고 라 베르나를 향한 우리 자신의 여정을 시작한다면, 우리 자신도 사랑, 기쁨 그리고 열정의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렇게 쓰셨다. "환시가 사라지자 그 환시는 프란치스코에게 황홀한 향기로 그의 가슴을 태웠고, 그의 몸에는 뚜렷한 자욱이 남겨졌다. 이 어찌

활홀하지 않다 하겠는가? 그때에 그의 몸에 그의 손과 발에 못자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니, 그것은 그가 십지가 위의 그분에게서 본 환시와 꼭 같은 것이었다." (13 장 3 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여정을 떠날 때 레오 형제에게 주신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문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며, 그 분의 자비와 평화를 우리도 축복 속에 맛보게 될 것이다.

나는 중세시대의 성인과 역사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위로와 거친 영적 사막에서의 시련이 여전히 나에게도 값진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삶이 거칠고 무미건조 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가끔 두 분, 프란치스코 성인과 성 보나벤투라 성인과 함께 라베르나 산을 오른다. 두분 성인들이 묵상 속에서 "말씀"에 가까이 계심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새겨주신 삶의 길을 충실히 살아갈 나의 여정을 다져나가는데 두 분들의 삶의 체험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글은 내가 참가했던 가톨릭 성서학교 반에서 주제로 택했던 묵상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영적 체험을 서로 나누는 Lectio Divina (영적 독서)에서 영감을 얻은 결과다. 주제는 신명기 30 장 14 절에 있는 말씀: "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 할수 있는 것이다." 성 바오로의 로마서 10 장 8 절에도 "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 구절들이 나에게 명확히 다가 왔다. 나는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 드렸다. 그런 다음 성녀 끌라라의 길을 따라 나는 정원에 내려가 자세히 주위를 살기 사작하였다. 거기에는 겨울 내내 매말랐던 땅에 첫 봄의 어여쁜 꽃이 피어 있었다: 다정함, 어린 꽃입, 섬세함이 새겨진, 창조주의 손길임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희열감을 느꼈다.

잠시 이 성서구절을 음미해 보자.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해 주는가? 그 구절이 어디로 그대를 인도해 주는가? 그대는 성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대도 할 수 있다. "말씀"은 그대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다.. 그분은 그대 마음 속에 깊이 와 계시다. 축복 받은 그대 평화를 누리시라!

Lectio Divina(영적 독서)는 성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이다. 영적 독서는 우리를 살아 계신 하느님과 긴말한 대화의 깊은 관계로 이끌어 준다. 기도와 관상 속에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다. Lectio Divina 는 전통적으로 네 단계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성서 말씀을 읽고, 주의 깊게 말씀을 되색여 묵상하고, 조용한 기도 속에서 응답하고, 주님의 현존 안에서 편히 쉬는 것이다.

응시, 사색, 관상, 그대로 따라간다.
말씀을 응시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살아 간다.